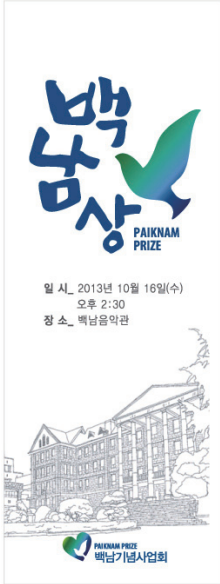


## 백남상(賞)과 박영희



백남 김연준을 기리는 백남상이 2013년 처음 제정되어 박영희가 첫 번 음악 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었고, 지난 10월 16일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5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주어졌다. 박영희는 “전세계를 통하여 큰 상을 많이 받아 보았지만 고국에서 주는 상이라 더 없이 기쁘다” 밝히면서 수상의 기쁨을 국내의 많은 작곡하는 동교와 후배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나 한국작곡가협회의 회장인 황성호를 언급하며 1,200명의 회원 작곡가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작곡에 매진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며 예술의 길, 창작의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자리를 메운 청중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웠다.

백남 김연준은 한양대의 설립자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바리톤 독창회를 열었던 음악가로서 국민가요의 하나인 「청산에 살리라」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지은 노래, 찬송가가 2,000곡에 이른다는, 한국의 슈베르트로 알려져 있다. 음악에 뜻을 두었지만 음악인으로서 보다는 교육사업에 헌신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음악활동을 병행하며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 한양학원을 우리나라 명문사학으로 만들었다. 그를 기념하는 백남기념사업회에서 제정한 상(賞)으로 음악인, 특히나 작곡가를 기리는 일은 참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작곡가 강은수(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수)

작곡가 강은수는 작품을 통하여 청중과 소통하는 일과 음악에 관한 다양한 생각으로 여러 대중과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Ad Lib. 시리즈 음악회가 4회 개최되었고, 이것은 10회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꽃보다 표, 창작 쿼터제, 창작물 재연하기, 후원제, 중장기적인 예술기획 등을 정착시킴으로 공연예술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글을 쓰며 생각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단국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며 '현대음악 바로듣기'와 '나도 음악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곡가는 그 어느 예술가에 비하여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다. 살아 숨쉬는 작곡가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들이 무대에 올라와 직접 연주하는 것도 아니요, 음악작품을 눈에 볼 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클래식음악이나 대중음악처럼 공중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대에서 연주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청중에게 전달되고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작곡가의 작품을 듣는 일이 쉽지 않다.

작곡이라는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상(음악적 영감)에서 시작하여 소리라는 소재로 공간 속의 울림을 시간 안에 구축하는 구조물로 정의해 보자. 즉, 그것은 소리로서 공중에 전달되어 청중의 지각, 혹은 인식을 통하여 어떤 인상을 남겨주지만 거기에 딱히 정확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상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작곡가는 작품을 통하여 슬픔을 전달하고자 했다지만 그 음들이 만드는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워 슬픔의 경지까지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작곡가는 기쁨을 노래했다고 하

지만 그것이 전혀 다른 감정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음악 언어의 추상성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은 오랜 세월을 묵힌 고 시(詩) 한 수를 음률이라는 옷을 입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멋진 일을 하고 있다. 이 날 수상기념으로 작곡되어 서울 모테트합창단(지휘 박치용)에 의하여 연주된 박영희의 신작합창곡 「연꽃」은 허난설헌의 시 중에서 연꽃을 노래한 몇 수의 시를 박영희가 음악으로 다시 빚어낸 것이다. '연밥을 따는 노래', '서릉 노래', '꿈에 본 것을 적다'라는 세 편의 시에서 건져 올린 아름다운 언어들이 박영희의 소리를 입어 세상에 올려 퍼진 것이다.

가을날 긴 강은 벽옥이 흐르는 듯  
연꽃 수북한 곳에 고운 베를 매었네.  
님을 만나러 강 너머로 여납을 던졌다가  
멀리서 남에게 들켜 종일 부끄러웠네.

- 연밥을 따는 노래

전당 강가에 바로 내 집이 있어  
오월이면 연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검은 머리 반쯤 늘어뜨린 채 줄다가 깨면  
난간에 기대어 뱃노래도 불렀지요.

- 서릉 노래

푸른 바닷물이 하늘 바다로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오색 난새에게 기대고 있다.  
연꽃 스물일곱송이 불게 떨어지니  
달빛이 서리 위에 차갑기만 하다.

- 꿈에 본 것을 적다

500년 전 스물일곱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살다 간 천재시인 허난설헌의 시 한 수 한 수가 박영희에게는 더없이 귀한 보물이었다. 하나씩 음미하고 어루만지며 그 안에 자기를 대입시켜 보며 시 안에 들어있는 자연, 고향산천을 그리워하였다. 연꽃이 피기 시작하는 5월, 벽옥 같은 가을의 긴 강,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서리 위로 비치는 달빛, 500년 전 시인이 보고 읊은 이 모든 것들

이 긴 세월을 흐르며 유행과 취향이 수도 없이 바뀌고 변하여 지금의 독자를 만나서 그것이 음악으로 청중들에게 전달되어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이다. 언어에 변형과 전이가 일어나고 추상화되어, 전혀 다른 형상이 되어 청각의 세계에서 귀에 들린 소리는 다시금 눈에 선명하게 연꽃잎으로 살아나 심지어는 연꽃 향기까지 느끼게 되는 오감을 자극하는 현상으로 화한다.

우리나라에 현재 작곡가를 기리는 상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 작곡상이 있고, 연주, 작곡을 구분하지 않고 대원음악상, 난파음악상, 그리고 새로 생긴 백남상 음악부문이 거의 전부이다. 작곡가들의 나서지 않는 성격만큼이나 깊은 고뇌에서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평가나 칭찬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중들은 어떻게 새로 탄생되는 음악들을 들을 수 있겠는가? 백남상 음악부문 수상자 박영희의 70여 편의 작곡 중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놀랍게도 그가 세계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관현악곡 「소리」(1980년 작)는 물론이요, 그의 솔한 관현악곡 어느 한 곡도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된 적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활동이 너무 간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할 일이라 여긴다. 일반적인 청중들은 모른다. 우리나라의 어느 작곡가가 어떤 음악을 쓰는지. 그들은 단지 서양작곡가들의 음악만을 들을 기회밖에는 없는 것이다.

디아스포라 40년 고국에서 주는 상을 받고 기뻐하는 박영희의 수상소감은 하고픈 말의 시작도 안 꺼낸 듯하다. 차라리 말 없이도 그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상징이었던지 모르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기쁠 때는 눈물이 나오지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라는 데서 행간을 읽는다.

우리는 듣고 싶다. 그의 음악을.

그리고 우리는 보고 싶다. 파안(활짝 웃는 얼굴)이라는 그의 호에 걸맞은 그의 진짜 얼굴을.

음악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난 그 맑은 얼굴을.